

#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 down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경건의 훈련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2. 오는 수요일(9월 2일) 예배부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시편 30-50편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 119:40).

4. TEE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개강: 9월 15일, 기도 과목은 풍생과 신토 중 한 과목을 수강한 다음 가능).

과목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요일 및 시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3시50분
담당 목사	이성철 목사	이성훈 목사	이태한 목사
기간 / 회비	15주 / \$20	11주 / \$25	11주 / \$20

5. 세례자 예비 교육과 권사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6.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 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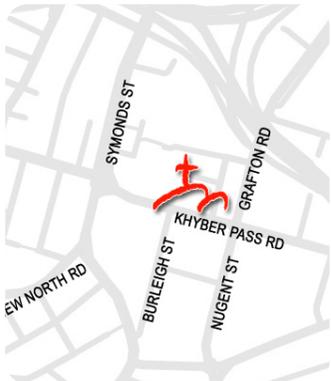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 9월 교회사역일지

9월 20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9월 27일 (주일)  
성찬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 9월 기도순서

9월 6일 (주일)  
김철재 집사  
9월 9일 (수)  
정옥자 권사  
9월 13일 (주일)  
박덕철 장로  
9월 16일 (수)  
정진택 집사

## 9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김순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5호

2020.08.30

#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 섬 기 는 사 람 들

담 임 목 사 이 태 한  
부 목 사 이 성 철  
부 목 사 이 성 훈

## 청 년 예 배

금 주 기 도  
-  
다 음 주 일  
-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118:24-25,28	인도자
✧찬 송	27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57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김병진 목사
성 경 봉 독	창세기 12:1-3	인도자
설 교	떠나야 할 곳	이태한 목사
찬 송	545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응 답 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 수요일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9:1-8  
설 교 광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성훈 목사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수요일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 선교란

### 이번 주는 오클랜드에서 사역하는 장세중 선교사 소식입니다.

기도의 용사 여러분

이곳 오클랜드는 Covid로 인해 Level 3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신실하신 예수님께 저희의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봉쇄령이 발령되기 전에 에스더(저의 아내)가 방문했던 두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S 자매(회심자)의 할머니께서 오랜 지병 끝에 고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S 자매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30년 이상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Covid로 인해 할머니의 임종 및 장례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었던 것은 S 자매와 어머니, 할머니의 사진에 정성스런 편지를 써서 꽃다발과 함께 방문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A 자매(이웃, 구도자)는 에스더가 뉴질랜드에 와서 초창기부터 함께 교제를 해온 자매입니다. A 자매는 에스더를 친 자매처럼 여기고 있으며 A 자매의 부모님이 뉴질랜드에도 오실 때마다 저희는 항상 A 자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야외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A 자매의 부모님은 예배도 참여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도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A 자매의 어머니가 Covid에 확진되었고 2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A 자매의 아버님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장례식도 못하고 A 자매의 가정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A 자매 가정을 위한 특별한 예배시간을 갖고 가정을 위로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울고, 로마서 8장 38-39절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A 자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며 솔직한 물음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옴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누며 함께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Covid로 인한 새로운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Covid가 잠잠해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희는 Covid로 인해서 안식년의 계획이 변경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렇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장 씨네 드림

### 기도 제목

- Covid로 만나지 못하는 지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역하도록.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주님의 피 값으로 산 교회가 거룩함을 능력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2.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며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도록.
3.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막힌 여러 어려움들이 속히 사라지도록.

## 나눔란

### 2020년 8월 23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셈에서 아브람으로> 창세기 11:27-32

바벨탑 사건 이후 셈의 족보에서 부각된 아브람의 등장으로 인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소망과 참된 복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브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셈에서 아브람으로 가는 족보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1)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950세를 산 노아 이후 벨렉부터 갑자기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나 수명을 짧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오래 살아보아야 죄로 가득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게 하신 것은(시 90:10)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없어야 오래 사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은 초월적 시간이기때 이 땅의 수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이며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간이 늘 영원이 되는 삶, 초월적 시간을 깨닫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원성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11:30). 자식은 여호와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셨는데(시 127:3) 자식도 없는 아브람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족보를 만들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에도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사 43:19).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사 43:21)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망의 인생을 찬양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 해도 내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아브람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이름의 뜻처럼 변영과 부유의 도시지만 사람을 목마르게 하고 영혼을 황폐화 시키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세상을 떠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락다운 동안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강박함과 게으름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몰두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데라는 갈대아 우르와 문화가 비슷한 육적인 만족을 주는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11:32.)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결심한 신앙은 식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데라처럼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딤후4:13). 데라의 주저앉음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시고 하란에서 아브람을 두 번째로 부르신 것입니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답게 영적 자손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